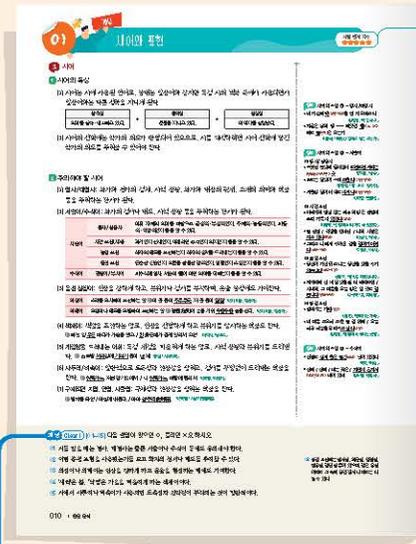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이 책의 구성

- STEP 1 **개념 학습** 기출 문제 선지에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 표현 등을 추출하여 수능 문학 핵심 개념 학습하기
- STEP 2 **개념 Clear!** 기본 확인 문제를 통해 개념 Clear하기
- STEP 3 **훈련 Clear!** 앞에서 학습한 개념을 기출 작품과 선지에 적용해 보며 훈련 Clear하기
- STEP 4 **실전 Clear!** 개념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 Clear하기

이 책의 특징



개념 Clear! (1~15)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 01 시를 읽을 때는 명사, 대명사는 물론 시술어나 수식어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 02 어떤 문장 표현을 사용했는가를 보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추리할 수 있다.
- 03 의성어나 의태어는 인상을 강하게 하고 운율을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 04 '재학'은 불, '낙갈'은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어이다.
- 05 시에서 사투리나 비속어가 사용되면 토속성과 친박감이 부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010 (1. 문법) 20

개념 학습

문학 작품 감상에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 친절할 설명과 풍부한 예를 통해 문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조단에서 어휘 풀이, '참고', '개념+', '더 알아볼까?' 등을 제시하여 수능 문학의 개념을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념 Clear!

앞에서 학습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OX, 적절한 말 고르기 등과 같은 문제를 통해 문학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익힐 수 있습니다.
- 보조단에서 어휘 풀이나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여 개념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훈련 Clear!

수능, 모의평가 및 학력평가 기출 작품과 선지를 활용하여 앞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험에서 문학 개념을 작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잠깐 확인'을 통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기 전 작품의 특징과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훈련 Clear! 12

11 **문학-시조의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12 **문학-시조의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실전 Clear!

앞에서 익힌 개념과 기출에서 추출한 선지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실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등 다양한 기출 문제를 마스터함으로써 내신은 물론 수능에도 확실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험 문제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함으로써 문학 문제 풀이법에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전 Clear! 12

11 **문학-시조의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12 **문학-시조의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고전/시조 고전
시조 고전

작품, 읽고 푸는 법

지문으로 제시되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효과적인지, 또 <보기>가 제시된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시, 읽고 푸는 법 함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시를 읽는 법, 특히 고어로 표기된 고전 시가를 읽는 법은 물론, 유형별 문제 풀이법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 소설, 읽고 푸는 법 출제자에 의해 선택된 일부 지문만 제시되는 소설을 읽는 법, 특히 어려운 고전 소설을 읽는 법은 물론, 유형별 문제 풀이법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시, 읽고 푸는 법

시, 읽고 푸는 법
시, 읽고 푸는 법

이 책의 차례

☆ 개념어 빨리 찾기 006

I. 운문 문학

		학습일		
01	개념 시어와 표현 010	평	인	<input type="checkbox"/>
02	개념 운율과 반복 018	평	인	<input type="checkbox"/>
03	개념 이미지 024	평	인	<input type="checkbox"/>
04	개념 화자와 청자, 대상과 소재 030	평	인	<input type="checkbox"/>
05	개념 시상 전개 037	평	인	<input type="checkbox"/>
06	현대시 대상에 대한 정서 044	평	인	<input type="checkbox"/>
07	현대시 성찰과 깨달음 053	평	인	<input type="checkbox"/>
08	현대시 현실 인식과 대응 062	평	인	<input type="checkbox"/>
09	현대시 공간과 시간 071	평	인	<input type="checkbox"/>
10	고전 시가 갈래와 특징 080	평	인	<input type="checkbox"/>
11	고전 시가 자연애 088	평	인	<input type="checkbox"/>
12	고전 시가 시조 097	평	인	<input type="checkbox"/>
13	고전 시가 가사 105	평	인	<input type="checkbox"/>
 시, 읽고 푸는 법 114		평	인	<input type="checkbox"/>



II. 산문 문학

		학습일
14	개념 서술 특징 118	_____ 일 □
15	현대 소설 근대사의 격동과 혼란 128	_____ 일 □
16	현대 소설 전쟁과 상처 138	_____ 일 □
17	현대 소설 산업화/민주화 147	_____ 일 □
18	현대 소설 개인의 고뇌와 성장 156	_____ 일 □
19	고전 소설 갈래와 특징 166	_____ 일 □
20	고전 소설 가정 내 갈등 176	_____ 일 □
21	고전 소설 사랑과 혼인 185	_____ 일 □
22	고전 소설 영웅과 전쟁 194	_____ 일 □
23	고전 소설 시대상과 비판 204	_____ 일 □
24	극 희곡과 시나리오 213	_____ 일 □
25	수필 현대 수필과 고전 수필 222	_____ 일 □
소설, 읽고 푸는 법 230		_____ 일 □

★ 개념어 빨리 찾기

ㄱ

가문 소설 176
 가사 080, 105
 가전체 166
 가정 소설 176
 각설 166
 간접적 제시 118
 갈등 030, 128, 147, 176, 230
 감각의 전이 024
 감정 이입 030, 080
 강조법 011
 강호가도 088
 개성적 222
 객관적 상관물 030
 걱정적 어조 030
 경간한 어조 030
 경기체가 080
 계절감 010
 계절적 이미지 024
 고대 가요 080
 고려 가요 080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037
 공감각적 이미지 024
 과장 011, 080
 관습적 상징 080
 관조적 어조 030
 구성 231
 군담 소설 194
 권선징악 166
 극 213
 극복 030, 156
 극적 방법 118
 기승전결 037
 기원적 어조 030
 기행 가사 105
 기행문 222
 긴장과 이완 166

ㄴ

낙관 030
 내방 가사 105

내재율 018
 냉소 030

ㄷ

단정적 어조 030
 단호한 어조 030
 달관 030
 담담한 어조 030
 대결 030
 대구 011, 080
 대비 037
 대상 030
 대상의 부재 044
 대조 011
 대화 118
 도치 011
 도회적 이미지 024
 독백 030
 동경 030
 동일시 030
 동적 이미지 024

ㄹ

리듬감 018

ㄴ

막 213
 말을 건네는 방식 030
 말을 주고받는 방식 030
 말하기 118
 매개물 030, 080
 명혼 소설 185
 몽유록계 소설 166
 몽자류 소설 166
 묘사 118
 문답 011
 문체 231
 물아일체 088
 미각적 이미지 024
 민요 080
 민중 044, 128, 204

ㄹ

반복 011, 018, 080, 114
 반성 030, 222
 반어 011
 방해자 030, 080
 변주 018
 변화법 011
 보여 주기 118
 보조 관념 011
 부재 044
 분위기 024
 불가능한 상황 설정 080
 비교 011
 비속어 010
 비유법 011, 080
 비판 030, 097, 156, 204

ㄷ

사색적 어조 030
 시설시조 097
 시투리 010
 삼입 시 166
 삼화적 구성 118
 상승 이미지 024
 상투적 표현 166, 231
 색채 이미지 024
 색채어 010
 생략 011
 생명력 044
 생성의 이미지 024
 서술 118, 231
 서술자 118, 230
 선경후정 037
 설(說) 222
 설의 011, 030, 080
 설화 166
 성장 소설 156
 성찰 030, 044, 053, 156, 222
 소멸의 이미지 024
 소재 030, 080
 송사 소설 166
 수미상관 018, 037
 수용 030
 수직적 이미지 024
 수평적 이미지 024

수필 222
 순응 030
 순행적 흐름(구성) 037, 231
 시각적 이미지 024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037
 시나리오 213
 시상 전개 037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037
 시어 010, 114
 시점 118, 230
 시조 080, 097
 심상 024

㉠

익장 080
 안정감 018, 037
 애정 소설 185
 액자식 구성 118
 어조 030
 언어유희 080
 역동적 이미지 024
 역설 011
 역순행적 흐름(구성) 037, 118, 231
 연군 105
 연상 037
 연쇄 011
 연시조 097
 열거 011, 080
 영웅 소설 194
 영웅의 일대기 구조 194
 영탄 011, 030, 080
 예찬 030, 044, 097
 외형률 018
 요약적 진술 166
 우의 080, 097, 204
 우화 소설 166
 운율 018
 원관념 011
 유배 가사 105
 유희 030
 은유 011
 음보율 018
 음성 상징어 010
 음수율 018
 음악성 010

의인 011
 의지적 어조 030, 156
 이미지 024
 일대기 구성 166

㉡

자아 분열 053
 자연 071
 자연물 044
 자연애 080
 자조 030
 집가 080
 장 213
 장면 213
 장면의 극대화 166
 장애물 030, 080
 적강 166
 적층성 166
 전기문 222
 전기성 166
 전형적 인물 204
 전환 037
 절망 030
 점강 011
 점층 011, 037
 점층적 반복 018
 정서 044
 정적 이미지 024
 중의 011
 지시문 213
 지식인 소설 128, 156
 직유 011
 직접적 제시 118

㉢

차설 166
 청각적 이미지 024
 청자 030
 체념 030
 초월계(환상계) 166
 촉각적 이미지 024
 충신연주지사 105
 친근한 어조 030
 친화 030, 044, 097

㉣

토속성 010, 231
 통일성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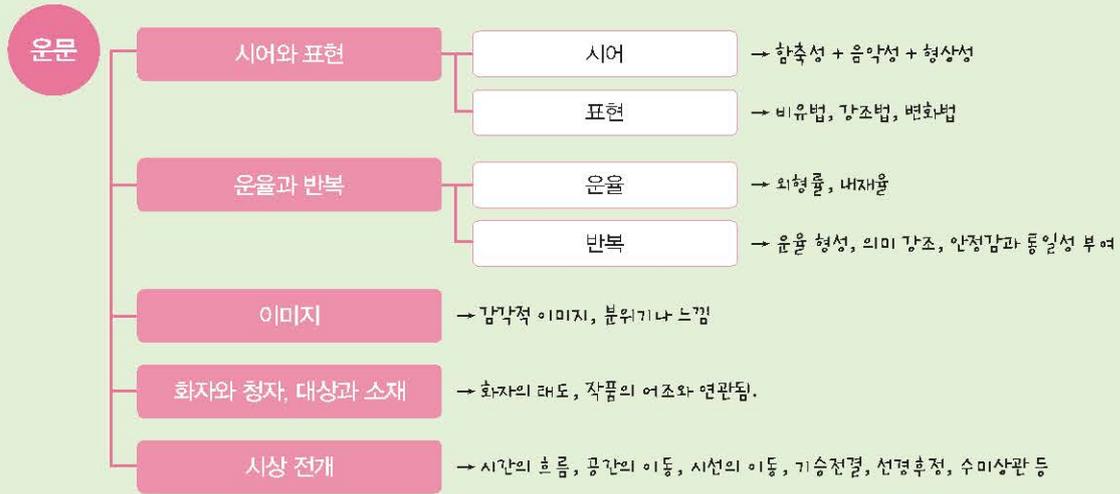
㉤

판소리계 소설 166
 편집자적 논평 118, 166
 평면적 인물 166
 풍자 030,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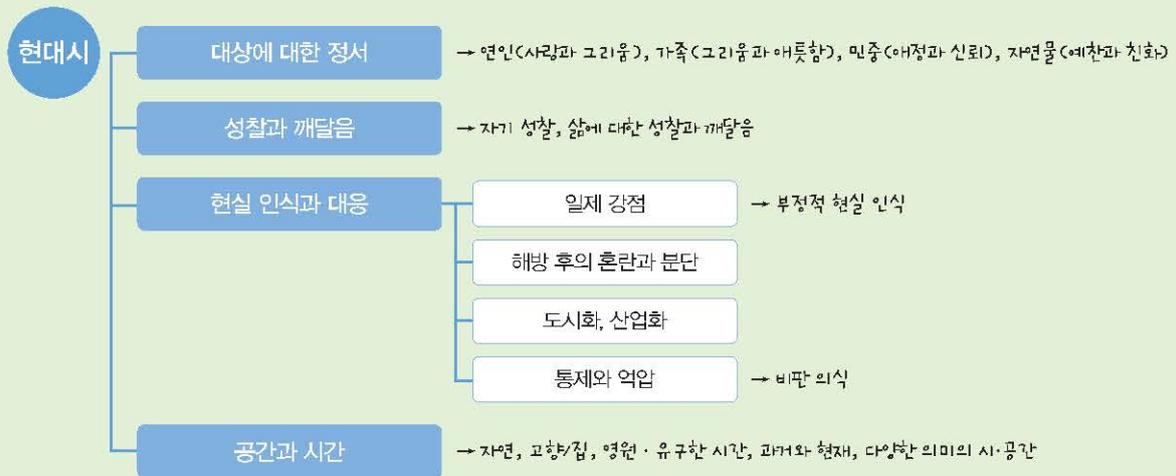
㉥

하강 이미지 024
 한시 080
 한탄 030
 함축성 010, 024
 합일 030, 071
 해설적(요약적) 방법 118
 해학적 어조 030
 향가 080
 향락 030
 향토적 이미지 024
 현실 인식 062, 105
 현장감 231
 형상성 010
 화자 030
 활유 011
 회상 071, 231
 회의 030
 후각적 이미지 024
 후렴구 018
 희곡 213
 희망 030

| 운문에 대한 이해 |



| 현대시에 대한 이해 |



| 고전 시가에 대한 이해 |



I

운문 문학



- 01 **개념** 시어와 표현
- 02 **개념** 운율과 반복
- 03 **개념** 이미지
- 04 **개념** 화자와 청자, 대상과 소재
- 05 **개념** 사상 전개
- 06 **현대시** 대상에 대한 정서
- 07 **현대시** 성찰과 깨달음
- 08 **현대시** 현실 인식과 대응
- 09 **현대시** 공간과 시간
- 10 **고전 시가** 갈래와 특징
- 11 **고전 시가** 자연애
- 12 **고전 시가** 시조
- 13 **고전 시가** 가사

• 시, 읽고 푸는 법

1 시어

1 시어의 특성

(1) 시어는 시에 사용된 언어로, 형태는 일상어와 같지만 특정 시의 맥락 속에서 사용되면서 일상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함축성 의미를 함축·내포하고 있다.	+	음악성 운율을 지니고 있다.	+	형상성 이미지를 형성한다.
-------------------------------	---	---------------------------	---	--------------------------

(2) 시어의 선택에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를 해석하려면 시어 선택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의해야 할 시어

(1) 명사/대명사: 화자와 청자의 정체, 시적 상황, 화자와 대상의 관계, 소재의 의미와 역할 등을 추리하는 단서가 된다.

(2) 서술어/수식어: 화자의 정서나 태도, 시적 상황 등을 추리하는 단서가 된다.

서술어	동사/형용사	어휘 자체의 의미를 바탕으로 긍정적·부정적인지, 주체적·능동적인지, 피동적·억압적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시간 표현(시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라면 추측인지 의지인지 등을 알 수 있다.
	높임 표현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수식어	종결 표현	단순한 진술인지, 의미를 활용한 강조인지, 명령인지 소망인지 등을 알 수 있다.
	관형어/부사어	피수식어(명사, 서술어 등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3) 음성 상징어: 인상을 강하게 하고, 분위기나 정서를 부각하며, 운율 형성에도 기여한다.

의성어	소리를 묘사하여 표현하는 말 ㉠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 작자 미상 『유산가』
의태어	모양이나 태도를 모방하여 표현하는 말 ㉢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쭈우쭈 춤을 춘다. ㉣ 작자 미상 『유산가』

(4) 색채어: 색깔을 표현하는 말로,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분위기를 암시하는 역할도 한다.

㉤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 흰 돛단배가 꿈계 밀려서 오면 ㉥ **이육사**, 『청포도』

(5)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휘: 특정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로, 시적 상황과 분위기를 드러낸다. ㉦ **하루밤 서리감에 기러기 울어 낼 제** ㉧ **정철**, 『사미인곡』

(6) 사투리/비속어: 일반적으로 토속성과 현장감을 살리고, 정서를 꾸밈없이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뭍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 니 **뭍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 **박목월**, 『이별가』

(7) 구체적인 지명, 인명, 사물명: 구체성과 현장감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 **밤차를 타면 / 아침에 내린다.** / 아아 **경주역(慶州驛)** ㉫ **박목월**, 『사향가(思鄕歌)』

참고 시어의 쓰임 ① - 명사/대명사

- 내 가슴에 **들**(여항 의지)을 찬 지 오래로다 ㉬ **김영랑**, 『독을 차고』
-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구토, 고국)에도 **봄**(광복)은 오는가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참고 시어의 쓰임 ② - 서술어

- (1) 동사/형용사
-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평화롭고 단란함) 곳 ㉮ **정지용**, 『향수』
 -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유정적 평가) ㉯ **장만연**, 『달·포도·임사귀』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부정적 인식) ㉺ **신석정**, 『꽃땀』

- (2) 시간 표현
-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튐튐**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과거) ㉻ **이윤익**, 『튐튐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현재) ㉼ **이형기**, 『낙화』
 -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미래-의지) ㉽ **윤동주**, 『서시』

- (3) 높임 표현
-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태도-공경)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면 /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 습니다**(정서-연민), ㉿ **나희덕**, 『못 위의 잠』

- (4) 종결 표현
- **꿈데기는 가라**(명령) ㊀ **신동엽**, 『꿈데기는 가라』
 -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노망) ㊁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빛』

참고 시어의 쓰임 ③ - 수식어

- **산평도 설게** **울은 슬픈**(비애) **날이** 있었다 ㊂ **백석**, 『여승』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흔들리** (거리감과 고향) **피어** 있네 ㊃ **김소월**, 『산유화』

개념 Clear! [01~05]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 01 시를 읽을 때는 명사, 대명사는 물론 서술어나 수식어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 02 어떤 종결 표현을 사용했는가를 보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추리할 수 있다.
- 03 의성어나 의태어는 인상을 강하게 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 04 ‘새싹’은 봄, ‘낙엽’은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색채어이다.
- 05 시에서 사투리나 비속어가 사용되면 토속성과 긴박감이 부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02 종결 표현에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등이 있으며, 같은 유형이라도 그 속에 담긴 정서나 태도는 다를 수 있다.

1 연인 - 사랑과 그리움

01

20159월 고1 학평

그렵다 /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 지지굽니다.

앞 강물, 뒷 강물, /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김소월, 「가는 길」

잠깐 확인

- 1-1 화자는 자신이 떠나는 이별의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다. (○ / ×)
- 1-2. '()'와 '()'은 머뭇거리는 화자에게 떠날 것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 '머뭇거림'의 정서는 '행동'과 '행동의 멈춤'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드러나며,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소재, 시어뿐만 아니라 행의 배열 기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① '말을 할까'와 '그냥 갈까'에 사용된 어미를 통해 행동과 행동의 멈춤에 대한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② '다시', '어서'의 부사는 화자가 떠남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보여 준다.
- ③ '까마귀'와 지는 '해'는 화자에게 떠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환기시킨다.
- ④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낭송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화자의 머뭇거림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⑤ 1, 2연은 짧은 시행을, 3, 4연은 보다 긴 시행을 배열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02

2017 6월 고2 학평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뭇헌다요
뭇헌다요, 산 아래 /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뭇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뭇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뭇 소용이다요
뭇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뭇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저 달 금방 져 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텃디
병신같이, 바보 천지같이 /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뭇헌다요, 뭇 소용이다요

-김용택, 「들국」

잠깐 확인

- 2-1 화자는 '()',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당신'의 부재로 인해 모든 것이 부질없어진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2 '마른 ()', '허연 ()', '() 천지'라는 구절로 보아 화자는 '당신'이 부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그리운 입에 대한 애뜻함과 이별의 상황에 대한 막막함을 함께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입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하여 강조한다. 동시에 특정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 자신의 정서나 처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 ① '단풍'과 '물빛' 등의 자연물과 대비하며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하얀 손짓'은 '당신'을 향한 화자의 애뜻한 정서를 자연물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초생달'은 '그대 얼굴'을 떠올리며 이별의 상황에 막막해하는 화자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군.
- ④ '막막한 어둠'은 '마른 지푸라기'나 '허연 서리'가 환기하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서리발에 하얀 들국'을 통해 부정적 상황 속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잠깐 확인 1-1 ○ 1-2 까마귀, 강물 2-1 뭇헌다요, 뭇 소용이다요 2-2 지푸라기, 서리, 어둠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 4월 고3 학평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한용운, 「수(繡)의 비밀」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

(나) 꿈결처럼 /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A]
 한 그루 / 짙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 송이송이 흰 짙레꽃으로 피워 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C]

아름이 출렁거리 / 늘 말을 잃어 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D]
 꿈결처럼 /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문정희, 「짙레」

0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0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으므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낸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시, 읽고 푸는 법

1 시 작품을 읽는 법

시도 누군가의
말이고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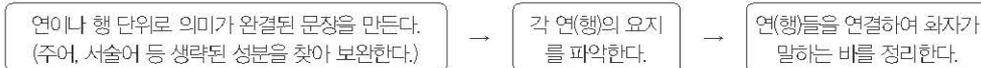
비문학 독해 지문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내용 파악에 집중하며 읽어야 한다.

1 작가와 제목부터 확인한다.

작가	작품의 '설계자'이다. 설계자의 성향이 작품의 성향을 결정한다.	→	작품 경향을 아는 작가라면 그 경향을 토대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제목	작품의 '간판'이다. 제목은 주제를 담고 있을 수도, 소재나 작중 상황을 알려 줄 수도 있다.	→	제목을 바탕으로 주제나 상황, 화자, 소재 등을 파악하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예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윤동주가 일제 강점의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을 주로 노래한 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작품을 '반성과 부끄러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강호, 즉 자연 속에서 보내는 네 계절을 노래했다는 제목의 의미를 알고 작품을 감상하면, '자연애'라는 주제 의식과 '사계절'이라는 구성상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 순서대로 읽으면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내용을 정리한다.



3 꼼꼼하게 읽으면서 시어의 의미와 역할을 추리한다. *

- (1) 시어에 담긴 의미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판단한다.
예 저어 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김혜순, 「한강을 열고, 눈이 내린 날」
→ '못하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부자유와 억압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2) 시어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문맥을 토대로 의미를 판단한다.
예 •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 옹희(隆熙) 2년 유지란, 「출생기(出生記)」
→ 부정적 의미의 수식어로 볼 때, 역사적 시련을 의미한다.
•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한 자옥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이상화, 「배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화자의 행동을 재촉하는 활기찬 모습을 의미한다.
- (3) 수식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더하고 있는지에 유의한다.
예 •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한용운, 「해당화」
→ '벌써'라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당신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야속함을 표현하고 있다.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 님의 절대성에 대한 인식을 '향기로운'과 '꽃다운'이라는 관형어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4 조사와 어미에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반영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한다.

- 예 •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 나도 가만 눈을 감네. 이호우, 「개화(開花)」
→ 경이로운 개화의 순간에 동화된 모습을 '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서시」
→ 종결 어미 '-야야지'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 강조하고 싶은 말은 자주 반복되므로 반복되는 말에 유의한다.

- 예 가시리 가시리있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있고 나는 작자 미상, 「가시리」
→ '가시리있고'를 반복하여 입이 떠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6 특이한 표현을 만나면 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와 의도를 추리한다.

참고 고전 시가 읽기

- (1) 고어
고어로 표기된 고전 시가는 소리 나는 대로 읽어 보고 현대어로 바꾸어 내용을 추리한다.
예 빛사름 풍류물 미줄가 못 미줄가 정극인, 「상춘곡」
→ 옛사람 풍류를 미줄까 못 미줄까?
(2) 어려운 한자어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를 토대로 의미를 추리한다.
예 밤동만 일면명월(片明月)이 그 벗인가 흥노라 신음, 「방중시어(放翁詩錄)」
→ 한 조각 밝은 달
(3) 자주 등장하는 어휘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 어휘는 틈틈이 그 의미를 익혀둔다. 예 강호, 자연, 흥진, 속세 등
(4) 다양한 갈래
고전 시가는 다양한 갈래를 포괄하며, 각 갈래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 갈래의 특징을 알고 작품을 읽으면 해석이 좀 더 쉬워진다.

* 3~7과 관련된 내용은 '개념'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01 시어와 표현

개념 Clear! 본문 010-014쪽

- 01 ○ 02 ○ 03 ○ 04 ×
- 05 × 06 의인화, 인격 07 설의 08 역설
- 09 어순 10 대조, 대구

- 04 '새싹'은 봄, '낙엽'은 가을을 떠올리게 하므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휘'로 볼 수 있다. 색채어는 '파란 하늘'의 '파란', '붉은 먼지'의 '붉은'과 같은 표현이다.
- 05 긴박감(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은 현장감과 다르다. 사투리나 비속어가 긴박감을 부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훈련 Clear! 본문 012-014쪽

- 01 현재형 02 색채어 03 계절감 04 연쇄
- 05 도치 06 빗대어 07 대구 08 물음
- 09 자문자답 10 반어, 비관 11 역설, 영원한 사랑을 다짐
- 12 설의, 안타까움 13 (1) ○ (2) ×
- 14 (1) ○ (2) ○ 15 (1) ○ (2) ○ (3) ×
- 16 (1) ○ (2) × (3) × (4) × 17 (1) ○ (2) ○ (3) ×
- 18 (1) ○ (2) × (3) × (4) ○ 19 (1) × (2) ○ (3) ○ (4) ×
- 20 (1) ○ (2) ○ (3) ○ 21 (1) ○ (2) ○ (3) ○

- 01 화자는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다. 이런 시적 상황이 '-나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02 '푸르니'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대나무)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03 '추수'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을 적'에서 시간이 한참 경과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참고 기령 가사의 일부로, 중국에서 귀국하는 길의 강상이 나타나 있다.
- 04 '성 → 담 → 집 → 뒤주 → 꿩 → 너'의 과정이 앞의 말을 고리로 뒷말이 이어지는 연쇄적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 05 정상적인 어순대로라면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라고 해야 할 것을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이라고 어순을 도치하여 표현함으로써 집을 짓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06 화자의 내면('내 마음')을 구체적 사물인 '기(旗)'에 빗대어 표현(은유)하고 있다.
- 07 1행과 2행, 그리고 3행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대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조로 볼 수는

없다.

- 08 '무엇하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보리를 타작하는 건강한 농민의 모습을 '낙원'으로 인식하면서, 벼슬길에서 헤매던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는 한시의 일부이다.

- 09 1행에서 묻고 2행에서 스스로 대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입을 그리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 10 정신적 가치(시, 소설)를 무시한 채 세속적 영달만을 추구했던 인물에 대해 '행복하게 살'았고 그 비석이 '홀륭'하다고 말하는 시인의 마음은 진심일 리 없다. 따라서 반어이며, 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11 간 남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므로 역설적 표현이며, 이를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영원함을 드러내고 있다.
- 12 분단으로 인한 대기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요런 자제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는 설의적 물음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13 (1) '꿈꾸었노라'라는 서술어와 '동무들과 내가 ~ 돌아오는 꿈을'이라는 목적어를 도치하여 화자의 바람을 부각하고 있다. 정상적인 어순은 '나는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꿈꾸었노라'이다.
(2) '꿈꾸었노라'에 사용된 어미는 명령형 어미인 '-라'가 아니라,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노라'이다.
- 14 (1) '어저'에서 영탄을, '모르던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2) '제 구태여'를 '가라마는'과 연관 지으면 임이 구태여 가는 것이 되므로 임이 행동의 주체가 되고, '보내고'와 연관 지으면 자신이 구태여 보낸 것이 되므로 화자가 행동의 주체가 된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하므로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15 (1) '무겁고 불편한', '저당 잡힌'에 담긴 부정적 의미가 '오늘'과 '내일'이라는 일상적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벚꽃 그늘에서 마음이 정화되고 가벼워지는 것을 '새의 날개 처럼'이라고 '새의 날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3) '알게 될 것이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대상에 대한 회의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16 (1) '플라타너스'에게 '너'라고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2) 본래의 마음과 반대되게 말하는 것, 즉 반어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
(3)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를 넣고 있다. 플라